

SINCE 2009



SEOUL ROSE CLUB NEWSLETTER

특집 _ 장미로 잇는 韓日교류

제4호 | 2016. 12. 31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CONTENTS/

사람과 장미 Rosarians, Rose Societies, Rose Breeders

- 04 로자리안 : 김치영 로자리안
- 06 로자리안 : 오성철, & 김성자 로자리안
- 07 로자리안 : 김영주 로자리안
- 08 명문 장미 클럽 : 고전 장미와 넝쿨장미 클럽

장미와 문화 Rose Culture & Life

- 10 장미로 잇는 한일 교류
- 16 장미 마을 만들기 사례 : 일본 후쿠야마
- 18 민화로 만나는 장미

장미 정원 Rose Gardens

- 20 나의 정원 조성기

발행일자 _2016.12.31

편집인 _김옥균, 김수연, 이성현

편집디자인 _박혜미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

회원접수 _

문의 ; seoulroseclub@naver.com

황보순 로자리안 ; 010-4761-2373

입회비 ; 100,000원 (일십만원정)

장미 품종과 장미 가꾸기 Rose Varieties & Rose Care

22 장미 품종 : Aussie Sixer (Tea, 2010 Viraraghavan)

24 일본 장미 관계자가 본 장미의 월동 관리와 방제

26 주요 장미 해충 및 방제

장미 식재와 경관 Rose Planting & Landscape

28 정원 여행 중에 만난 장미 2 : 장미화단과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장미 연출

장미와 정원 소식 Rose & Garden News

32 장미 서적 소개 : 장미를 예쁘게 피울 수 있는 재배 테크닉

(저자 스즈키 미츠오)



/서울로즈클럽 회보 제 4 호/

치치, 김치영

안녕하세요.

12월부터 서울로즈클럽과 함께 하게 된 치치입니다.

저는 서울 한가운데 도심 옥상에서 장미정원을 가꾸고 있고, 현재 70여주 이상의 장미를 키우고 있으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이고, 장미 키우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키우고 벌써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미는 제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렸고, 제 스스로를 3년 전의 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자인 제가 장미를 키우게 된 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3년 전 저는 서른을 앞두고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도 많고 사춘기보다 더한 시기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집, 학교 그리고 회사밖에 몰랐던 어린 시절로 인해 서른이 다 되는 나이에 또 즐길 줄 아는 취미 하나 없었고, 제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어른 아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꽃꽂이였는데 꽃이 좋아 멀리 고속터미널 꽃 시장을 오가며 많은 힐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꽃꽂이를 하면서 장미가 주는 어떤 특별함을 미약하게나마 느끼게 되었고, 필연으로 절화인 데이비드오스틴 사의 줄리엣 장미를 만나게 되면서 제 장미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미"라는 꽃이 제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장미는

단순히 식물 이상으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생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 성장하고 꽃을 피워줄 때엔 제게 보람과 환희를 배우게 해주었고, 수많은 장미를 들이면서는 제게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욕심, 욕망을 만나게 해주었고, 온갖 벌레와 병과 싸울 때에는 스스로의 나약함,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까지 느끼게 해주는 가르침의 장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장미를 키우며 끊임없이 배우고 반성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저 뿐만이 아니라 장미를 키우고 계시는, 크게는 가드닝을 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서울로즈클럽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기도 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많은 일들을 함께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도움을 드리며 더 크고,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서울로즈클럽이 되기를 바라며 치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김치영 로자리안

치치의 장미정원



보나카바에서 핀 장미 사랑

저희가 운영하는 동탄에 위치한 보나카바 레스토랑 주변 화단을 정리,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미의 특성을 파악하며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서울로즈클럽의 2016년 송년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회원님들과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장미의 매력에 푹 빠져보려 합니다. 동탄 보나카바 오성철 김성자 부부



보나카바 장미정원 조성과정



글,사진; 김성자 로자리안

첫 만남의 떨림

지인의 소개로 서울로즈클럽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장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정원이나 해 잘 드는 베란다가 있어서 장미를 직접 가꿀 공간이 있는 것
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미에 대한 애정 같은 건 내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해하며 참석한 2016년 송년 모임에서 나는 작
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자연과 정원과 사람을 이야기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라 여겨집니다.
아직은 별다른 지식도 경험도 없지만 느릿 느릿 이라도 배우고 함께 하며 장
미에 대한 애정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애정이 깊어갈수록 내 삶도 더 풍성하
고 뜻 깊어질 것이라 믿으며... 반갑습니다~로자리안 여러분!!



글,사진: 김영주 로자리안

Old Roses & Climbers Club
명문 장미 클럽- 고전 장미와 넝쿨장미 클럽

와타나베 하루미치 (渡辺治道)- 클럽 대표간사

우리의 클럽 활동을 한국의 장미 애호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미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장미를 통한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클럽 이름은 「고전 장미와 넝쿨장미 클럽」이라고 합니다. 저희 클럽은 1992년 12월 1일에 3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약 170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서울로즈클럽의 Kim 씨도 멤버입니다. 클럽에는 조직도 임원도 없습니다. 또 규약도 없습니다. 「클럽 운영의 컨셉」에 맞춰 동경과 오사카에 몇 명의 간사가 도와주는 일을 맡고, 활동은 멤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유니크한 모임입니다.

클럽의 명칭은, 「고전 장미와 넝쿨장미 클럽」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고전 장미와 넝쿨장미에 국한하지 않고 야생 장미, 하이브리드티 로즈나 플로리반다 로즈 또는 잉글리쉬 로즈 등의 모든 로즈와 모든 장미가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활동은 장미에 관계되는 역사나 문학, 회화, 음악 등 폭넓은 장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클럽에서는 재배 지도 혹은 콘테스트, 월례회 등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장미 및 장미에 관계되는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정보교환 네트워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는 클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멤버에게 요청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보를 연간 6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B5용지 사이즈로 26~32페이지, 멤버의 기고에 의해 「조사·연구 발표」 「각종의견」 「국내외의 장미정보」 「도서의 소개」 「회원의 활동 보고」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발행된 것이 179호가 되고 있습니다.

클럽만의 출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세기 훨씬 전에 일본에 있어서의 장미 문화 여명기에 대해서 기록한 「메이지 장미연표」나 그 시기 재배되고 있었던 품종에 대해서 정리한 「메이지의 장미품종」은 클럽의 멤버이었던 나카노 다카오(中野孝夫)씨의 연구를 책자와 CD 형식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클럽의 멤버였던 나카노 타카오(中野孝夫)씨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메이지의 장미 품종 CD



이 두 가지는 상업적인 출판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운 테마를 다룬 것으로 일본의 장미 문화를 아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Rose newsletter」의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장미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하는 것으로 클럽 멤버가 파악한 정보를 집약해서 등록된 멤버에게 E-Mail로 전송하게 됩니다.

클럽 월례회는 없습니다. 매년 한번 전국 멤버가 참가하는 미팅을 열고 장미 연구자나 클럽 멤버들이 최신 테마를 발표 하거나 국제 회의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니시오 마사 카즈(西尾讓司) 씨의 세계 장미회 연합의 국제 심사 위원회 활동 소개



일년에 한번 있는 미팅 후의 친목회에서

능동적 멤버들이 주도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미의 학명을 이해하기 위한 라틴어 학습회, 해외의 문헌을 읽는 학습회, 차를 마시면서 마음 편히 장미에 관한 답소를 즐기는 모임 등도 이들 멤버들에 의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편, 클럽의 멤버가 수집한 몇 천 점에 이르는 국내외의 장미 문헌에서 중요한 것을 선별하고 박물관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나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간된 장미 관계 서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국내에 남아 있는 미스터리 로즈의 보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럽 발족 초기에는 고전 장미가 아직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 클럽의 활동 테마에는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전 장미의 붐이 지나고, 장미를 즐기는 방법도 잉글리쉬 로즈를 비롯한 브랜드 로즈 등이 더해져서 다양화 되고 있으며 멤버의 니즈도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클럽이 해야 하는 역할도 점점 변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와노(津和野)에 남아 있던 이름 모를 오래된 월계화. 「지로—즈 터 No.3」이라는 스터디 네임을 짓고 폴퍼리언덕 장미원에서 보존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글 (번역, 편집): 유병국 로자리안

장미로 잇는 한일 교류

Fukuyama Rose Society 일행의 한국 방문

후쿠야마 로자리안들이 보내 온 장미

후쿠야마 장미회(Fukuyama Rose Society) 카미가와우치 이사장과 후쿠야마 북로타리클럽(Fukuyama North Rotary Club) 오가와 회장 일행의 한국방문은 2016년 11월 27일 ~ 30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후쿠야마 장미회의 한국방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대전에 패망한 일본 사회에서 후쿠야마 시민들은 희망과 평화의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자발적으로 장미를 가꾸기 시작하였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장미는 도시의 문화적 상징이자 배려와 온정의 사회적 아이콘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온정을 한국의 로자리안과 나누고자 손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장미 30주를 가지고 서울로즈클럽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3박4일간의 한국방문은 장미를 사랑하는 마음과 장미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장미 재배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우리 로자리안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고 장미의 반입에 따른 복잡한 제반 절차와 재정적인 부담을 해준 오가와 회장과 후쿠야마 북로타리클럽의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면서 앞으로 장미로 이어질 인연과 교류, 그리고 많은 스토리텔링을 기대하게 됩니다.



격리 재배중인 일본장미
글, 사진; 유병국 로자리안

첫날 성북동의 우리옛돌박물관과 정원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의 석조 조형물과 정원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분재형태의 나무들과 장미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재에 관심이 많은 나로써는 장미분재에 관한 것은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소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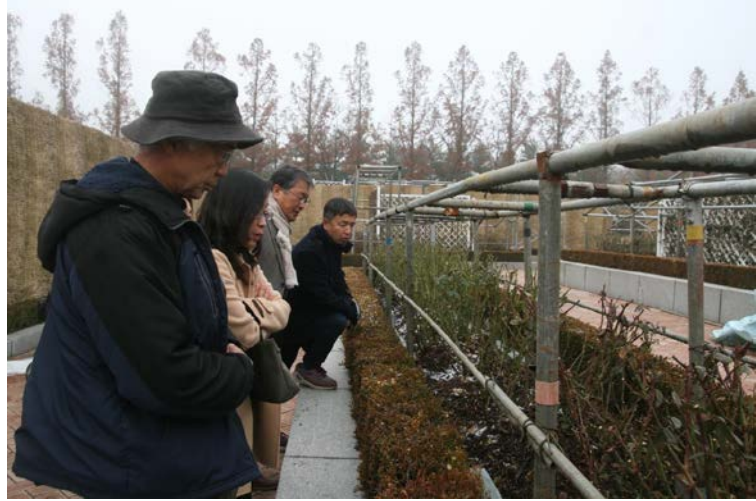


짧은 일정이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방문해주신 오가와 회장, 다나카 위원장, 그리고 카미가치우치 선생님의 수고가 후쿠야마와 한국이 장미를 통한 친선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되고, 미래에는 세계 장미회에 우리 한국의 관심과 열정을 소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후쿠야마에서 선물 받은 장미의 검역과 관련된 제반 절차가 끝나는 내년, 우리는 후쿠야마의 배려와 온정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물로 남아, 교류와 협력의 마음이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그만 장미 정원을 의미 있는 장소에 만들어 기부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하게 됩니다.

글; 유병국 로자리안



후쿠야마 로자리안들과 함께 한 정원

삼성에버랜드 장미원 - 호암미술관 회원 - 광주 너싱홈그린힐 로즈가든

서울로즈클럽과의 공식일정으로 이뤄진 2일 차에는 후쿠야마 로즈소사이어티 가미가와우치 이사장님과 후쿠야마 로타리클럽 멤버 두 분과 함께 에버랜드 장미원을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에버랜드 장미원은 겨울철 장미관리방법이 매우 독특한데, 매서운 겨울을 나기 위해 장미전체를 짚으로 멀칭하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이런 전체 멀칭방식은 그 효용성에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장미전문가인 카미가와우치 이사장님의 눈에는 분명 새로운 방식이기에 눈 여겨 보시며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삼성 호암미술관 회원에서 가미고치 이사장님과 단아한 한국전통조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이어진 광주 너싱홈 그린힐의 로즈가든

겨울추위에도 불구하고 장미 꽃 한 송이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여린 자태가 고와서 한참이나 서서 바라보며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장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로자리안으로써의 존중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서울로즈클럽에서는 후쿠야마의 귀한 손님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마련하였는데, 서울로즈클럽 마크가 찍혀 있는 정원앞치마와 머플러, 그리고 수제초콜릿이었죠. 미처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는지 무척 놀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준비한 우리가 더 기뻐했습니다.

글 ; 김정하 로자리안



경륜 있는 로자리안에게서 듣는 장미이야기- 안네 프랑크 장미

부슬부슬 비가 오던 초겨울 어스름한 저녁, 아담하고 운치 있는 찻집. 후쿠야마 장미회 가미가와 우치 선생의 방한 셋째 날 우리가 찾은 인사동의 초당다실은 삼십 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전해지는 따스하고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초당다실에서 처음 뵈게 된 선생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신 조용한 분이셨는데 소년의 미소를 띄며 들려주신 장미 이야기, 안네 프랑크의 장미!

안네의 장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박해를 받아 강제 수용소에서 짧은 생애를 마친 안네·프랭크를 그리워해 만들어진 장미입니다. 안네의 아버지인 오토·프랭크와 만난 벨기에의 원예가가, 안네가 장미를 아주 좋아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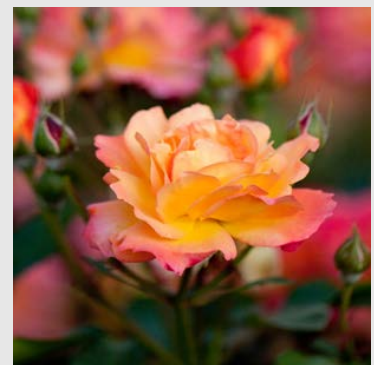
오토·프랭크로부터 일본에 주어져 수년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소중하게 계승되어온 안네의 장미는, 꽃 봉오리 때는 빨강, 개화 후 황금빛 연어 핑크, 빨간색으로 변화합니다. 색 변화에는, 「사람은 모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장미는 가시가 날카롭지만 튼튼하고, 그늘에 견디기 때문에 정원사들에게 인기!

추위와 질병에 강하지만,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나쁜 환경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장미는 전 세계적으로 심어져 있고 절화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며, 관목으로 큰 컨테이너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장미전문가 카미가와우치치



FB계의 모던장미 안네 프랑크

1972년 일본에 전해졌고 야마무로씨가 처음으로 기르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정원과 모든 일본 도시에서 꽃을 피우며 자랍니다. 어린이들에 의해 재배되었고 이후 야마무로씨의 초등생 아들 겐지군에 의해 접목된 'Souvenir d' Anne Frank' 부시 장미가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여러 곳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1. 붉은 꽃 봉우리



2. 첫 개화 후 황금빛 연어핑크



3. 꽃이 열면서 꽃잎의 끝이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4. 그 후 점차 중심부의 색이 밝아지고 그와는 반대로 끝은 진한 로제 색상입니다.



플로리분다계의 모던장미 안네 프랑크

가미가와구치 선생이 장미에 관심을 가지고 장미 가꾸기에 입문을 하게 된 동기 또한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안네 프랑크 장미를 번식하는 방법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미를 전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참조 : Ensemble-online
글, 사진; 이현정 로자리안

장미 마을 만들기 사례- 일본 후쿠야마 (福山)

히로시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50만의 도시 후쿠야마는 사계절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의 도시입니다.

후쿠야마의 장미와의 인연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1956년 시작됩니다. 전쟁으로 대부분의 시가지가 소실되어 복구 작업이 진행될 때 현재의 후쿠야마 장미 공원 근처 주민들은 평화의 마음을 담아 장미 묘목 1,000주를 심습니다. 이 작은 일이 장미 마을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장미를 키우는 주민의 열의는 점차 주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전국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71년에는 후쿠야마 장미축제가 개최되었고, 그 후 후쿠야마 시의 꽃으로 장미가 지정되고 시민 공모에 의해 장미 심벌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즈 마인드- 배려, 온정, 협력

The ROSE MIND
Project

장미에 애정을 담아 소중하게 키우는 것에서부터 배려, 온정, 협력의 마음이 생겨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전개



전쟁으로 황폐해진 마을의 부흥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1000주의 장미를 심은 것에서 비롯된 마을 만들기. “장미에 애정을 담아 소중하게 키우는 것에서부터 배려, 온정, 협력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이어진다”는 생각에서 로즈 마인드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를 통해 “사람과 마을과 평화를 소중히 한다”라는 마음이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중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지역의 중요한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는 장미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장미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장미를 통해 교류와 배려를 가르치고 장미와 더불어 환경과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미 마을 만들기 액션 플랜 - [100만주 장미]

후쿠야마 시는 시의 100주년을 맞는 해 100만주의 장미 마을 실현을 목표로 2010년 ‘장미 액션플랜’을 제정하게 됩니다.

각종 단체 위원과 시민공모위원이 선출되어 ‘100만주 장미 시민 회의’를 개최하고 장미 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캠페인과 함께 식재 장미의 관리는 도로 주변의 상가와 지역 주민들이 맡게 됩니다. 2016년 100만주 장미의 도시가 구현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장미에 대한 마음을 공유하는 목표가 실현되었습니다.

〈주요 캠페인〉

- 기차역 광장 및 역 주변 장미 심기
- 시가지 중심 5km 구간 장미 화단 조성
- 시민들에게 장미 나누어 주기
- 초, 중, 고등학교 장미 화단 조성 및 지원
- 시민이 건물을 건축할 때 2주의 장미 보급
-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장미 선물
- 신생아가 태어날 때 장미 전달
- 장미재배법 책자 보급
- 1년 과정 장미 대학 개설 장미 리더 양성
- 로즈 클럽과 연합, 축제 및 콘테스트 개최



후쿠야마의 장미 마을 만들기 운동의 근간은 로즈 마인드입니다. 이들은 로즈 마인드에는 감동을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온정, 서로 돕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즈 마인드를 후쿠야마의 마음으로 만들고 장미 꽃을 키우는 것처럼 소중하게 키워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을 이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후쿠야마 로즈 소사이어티 정리; 김옥균 로자리안



민화로 그린 장미

파란 장미

불가능,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 이라는 꽃말을 가진 파란 장미.

꽃이 아름답고 향이 진한 장미는 기원전 2000년부터 재배되어 수많은 육종을 통해 1만 5천여 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유독 파란 장미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필, 스틸링 실버, 블루문이 등장하였지만 파란색과는 거리가 먼 연보라 색을 띠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란장미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미에는 ‘텔피니딘’이라는 파란색을 띠는 색소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란 색소를 만드는 플라보노이드³과 히드록시라아제⁵ 라는 효소가 없어 텔피니딘 합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본의 산토리사와 호주의 플로리진사의 20년간의 공동연구로 패튜니아와 아이리스의 유전자를 넣은 파란 장미가 탄생되었습니다.

색소로 염색된 파란 장미가 아닌 식물체의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해 꽃잎 전체에 파란 색소가 들어있는 진짜 파란 장미가 실현된 것입니다.

불가능이란 꽃말이 기적으로 바뀌고,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 집 정원에도 파란 장미가 필 날을 기대해봅니다. 불가능을 넘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파란 물감을 넉넉히 풀어 희망의 파란 장미를 그려 보았습니다.

(자료 참고: KISTI의 과학 향기)

글, 그림 ; 이은주 로자리안

愛로자리안 까사 IN 벽계

2016년 여름

좁다란 골목길엔 Hybrid tea종의 장미들이 담장과 오솔길 화단 진초록의 편백들과 어우러져 여름햇살처럼 강렬한 색으로 도드라지게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봄 정원 주 자녀의 혼사가 하우스 웨딩으로 집에서 성대하게 치뤄졌습니다.

이른봄 정원을 새로 조성하고 결혼식을 위해 절화장미가 아닌 장미와 편백을 심어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원주는 장미에 매료돼 장미를 사랑하는 로자리안이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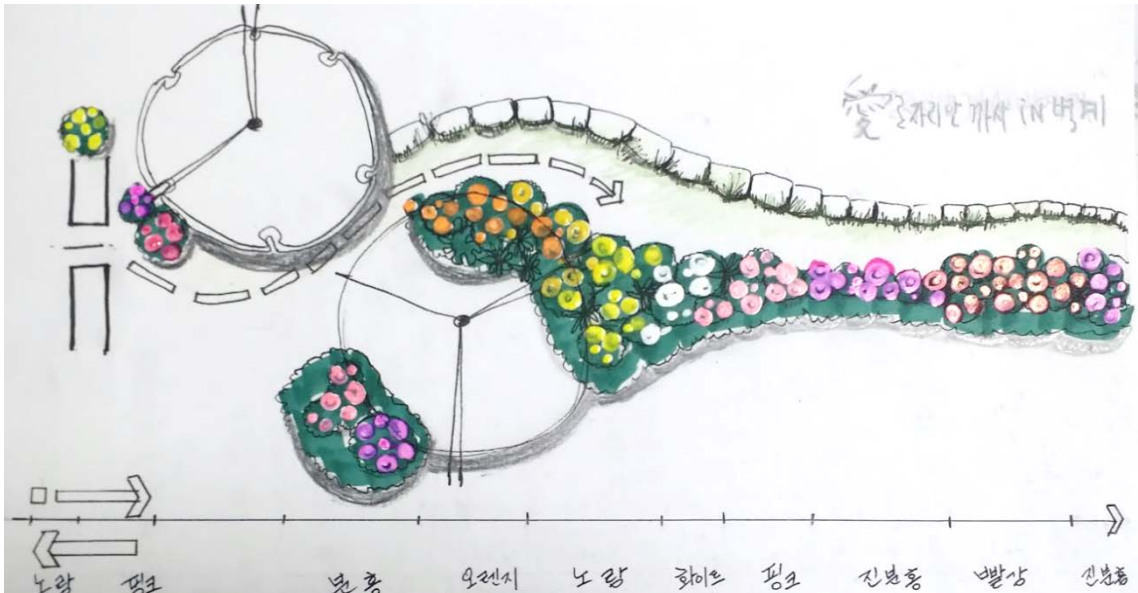
천 여 평의 넓은 정원에 시차를 두고 미니 장미정원을 요소마다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글; 곽은주 로자리안



1차 가을시공

1. 후문에서 지난 봄 시작된 장미에 이어 산책로로 연결하는 미니 장미화단의 스케치입니다.



후문 게이트엔 트렐리스를 설치 담장의 빨간 장미와 분홍 장미의 대비로 더필그림의 노란색을 배치했습니다.

2. 기존 담장의 편백숲에 심어진 장미들은 장미관리상 햇빛과 수분 양질의 거름(깻묵 골분 커피찌꺼기)병해충방제(흰각지벌레, 차응애, 회색곰팡이병, 진딧물, 가지마름병, 잿빛곰팡이병등..)를 자주 해야 하기에 굴취하고, 장미화단에 재식재 되었습니다. 장미화단은 혼합식재로 다년생 초화(맥문동, 꼬리풀, 크리스마스 로즈, 라벤더(겨울추위에 약함), 벨가뭇 등과 그라스종류)와 테두리를 회양목으로 식재했습니다.

3. 쉼터에 벤치를 두고 양쪽에 진분홍의 장미를 식재했습니다. 가을 시공에 들어간 장미는 영국 오스틴 장미로 원하는 품종이 품절로 배송가능한 장미를 선택했고 나머진 봄배송으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2차 시공은 내년 봄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장미화단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준비 중입니다. 2년 후 愛로자리안 in 벽계는 사계가 아름다운 장미정원이 될 것입니다



Aussie Sixer- 오지 식씨 장미 (Tea Rose, 2010 Viraraghavan)

([George Dickson × Souvenir de Claudius Pernet] ×
[Joanna Hill × Charles P. Kilham]) × Margaret McGredy



쓰지야 기보 (土屋希保)

Old Roses & Climbers Club 회원

회보에 오스트레일리아 여행기를 쓰기 시작한 날 호주의 Di Durston씨로부터 Facebook 메시지가 전해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상징적인 장미인 「Aussie Sixer」를 여행 기념으로 색연필로 그려서 보내준 서투른 나의 그림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멋진 액자에 넣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Tea 장미인 「Aussie Sixer」는 인도의 저명한 장미 육종가인 Viru Viraraghavan가 2010년에 출시한 것입니다. 액자에는 그림과 함께 넣은 장미 육종에 대한 Viru 선생의 스토리텔링이 소개되어 있고,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지요.” 라는 Di 씨의 짧은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송이 장미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이렇게 세계를 여기저기 뛰어 돌아다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에도 아직 저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Aussie Sixer 오지 · 식씨」 장미 스토리- Viru Viraraghav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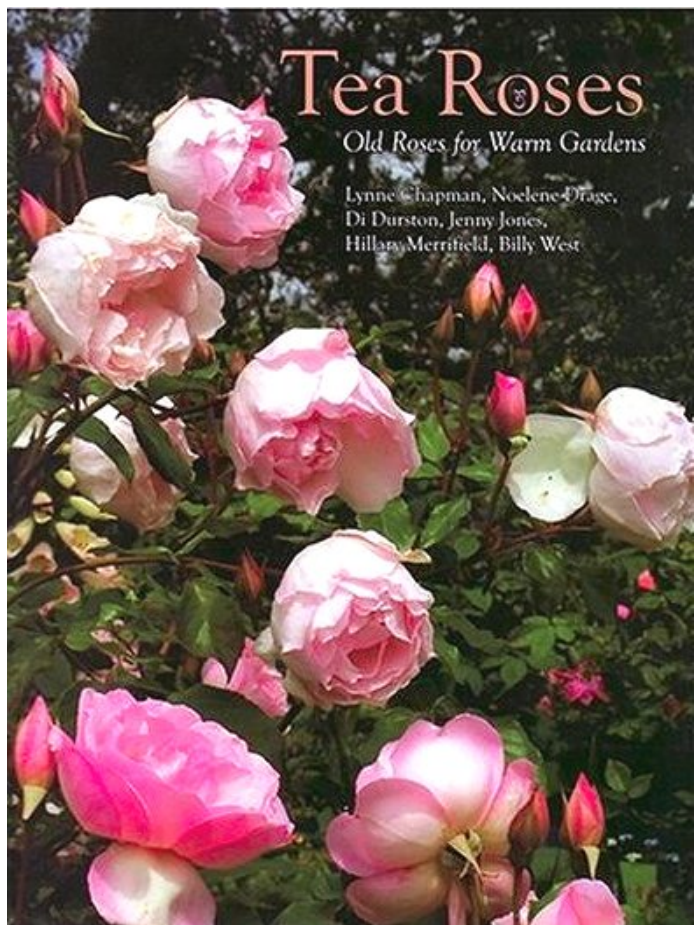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는 크리켓이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입니다. 크리켓 시합에 있어서, 가장 매우 화려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플레이어의 하나가 식씨(Sixer)입니다. 식씨는 타자가 친 강한 공이 높게 올라 구장을 넘어 객석까지 날라가 한번에 6타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크리켓 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장미에 관한 서적 분야에 있어서도, 근성 있고 지식이 풍부한 여섯 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여성들이 아주 우아하고 읽을거리가 충분한 티 장미에 관한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Tea Roses』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 책은 고전 장미에 관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미 품종으로 육종된 「오지 · 식씨」는 최고의 고전 장미 품종과 현대 장미 중에서도 최고의 품종의 형질이 서로 배가되어 큰 기대 속에 태어난 장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장 오래된 티 장미로 알려진 「사프 라노- Safrano」와 느와젯(Noisette) 장미 계열의 「레이브 돌- Reve d'Or」, 그리고 야생의 원종 장미(species rose)인 「기강테아(Rosa gigantea)」와의 교잡으로 태어난 장미입니다.

Di Durston을 포함한 여섯 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장미는 오지 식씨로 명명되었습니다.



글 (번역, 편집): 유병국 로자리안

일본 장미 관계자가 본 장미 월동 관리와 방제

후쿠야마 장미회의 카미가와우치 이사장의 한국방문 기간 중에 방문한 에버랜드 장미원과 너싱홈 그린힐 장미정원에서 장미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열정적으로 장미의 유지관리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동절기 장미의 월동준비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벗짚으로 완전히 덮인
에버랜드 장미원.. 월동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드칩으로 두껍게 덮은
뿌리 주변부



벗짚 안에 비닐로 싸인 것인
보인다



에버랜드 장미원의
동절기 월동준비는 너무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를 비닐로 싸고 짚으로 덮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뿌리 주변을 두껍게
덮어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지면의
온도관리가 지상부 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분 지역별로 피복의 정도를 다르게 해서
실험적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벗짚으로 덮기 위해 준비중인
철재 프레임



후쿠야마 로즈클럽의
가미가와우치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너싱홈 그린힐 장미정원으로 이어진 답사는 잠깐의 점심식사 후 에도 열정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장미를 키우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장미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미품종에 따른 식재 위치에 대한 조언, 노균병, 각지벌레 등의 방제법의 설명을 들었고 장미 잎 맨손으로 떼기 실험도 몸소 보여주시고...



장미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균병, 다음 해의 관리를
위해서는 겨울철엔 잎을 다
떼어주는 것 이 좋다.



각지벌레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 즉시 2주 간격으로 2회
살포하고 노균병은 4월에 미리
방제 하는 것이...



장미를 처음 심고 5년
정도까지는 비교적 꽃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꽃의
수도 줄고 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HT 장미는 무릎 높이에서 겨울
전정을 하지만 오스틴 장미
같은 관목형 장미는 수형에
맞추어 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재 위치에 따라서
장미품종을...



글, 사진; 김수연 로자리안

주요 장미 해충 및 방제

1. 개미류

개미는 대부분의 경우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장미 덩굴의 뿌리를 따라 굴을 뚫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것으로 인해 뿌리가 파괴되고 장미가 형편없는 성장과 개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미는 진딧물의 분비물을 얻기 위해 진딧물을 사육합니다, 그래서 개미를 보게 되는 곳에서 진딧물 또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방제) 개미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토양에 물기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또한 민트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미주위에 그것들을 심으면 개미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딧물류

그린 플라리로 자주 언급되는 수액을 빨아먹는 진딧물은, 특히 이른 여름에, 어린 장미의 새로나온 가지와 꽃순을 파괴하고 손상을 입히는 곤충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끈적거리는 단물을 분비합니다.

(방제) 개체수가 늘어나기 전에, 진딧물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발병 규모가 작다면 해충을 떨어뜨리기 위해 날카로운 물을 분사하는 분사기를 사용하시거나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제거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살충력이 있는 비누 또는 소프트 슝, 식물성 기름, 피레트룸과 같은 식물 추출물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인 살충제를 살포하여 주십시오.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화학물에 기반을 둔 스프레이를 사용하십시오. 진딧물을 먹이로 하는 레이디 버드(무당벌레)와 레이스 잉(폴잡자리)과 같은 유익한 곤충을 정원으로 유인하십시오.

3. 애벌레류

앞에 불규칙적인 모양의 구멍을 만드는, 여러 종류의 애벌레가 장미를 공격합니다. 만약 잎이 말리고 또한 그물모양을 하고 있다면, 그 손상은 잎말이 나방 애벌레에 기인한 것일 것입니다.

(방제) 애벌레는 장미에겐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손상이 미약하고 소수의 애벌레만이 관여되었다면, 단지 범인을 색출해서 떼어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든다면 피레트룸 살충제 (Chrysanthemum cinerariifolium의 꽃에서 분리한 살충제. 곤충의 각피에 빠르게 침투하여 작용하지만, 다른 동물과 식물에는 무독성이고 쉽게 생분해된다)스프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풍뎡이 유충과 딱정벌레류

다자란 채퍼 비틀즈는 이른 여름에, 장미 잎에 비정상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크림색의 하얀색을 가진 커다란 유충은 지면 아래에 살면서 식물의 뿌리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뿌리가 약해져서 그 식물은 결국 죽을 수 있습니다.

(방제) 보통은 모래가 포함된, 가벼운 토양에 관한 문제여서 유충과 딱정벌레 모두를 방제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당한 생물학적 약제를 이용한 방제를 사용해서 땅을 흙뻑 적시면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침투성 살충제가 딱정벌레를 방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거품벌레와 곤충류

노란 그린색의 이러한 곤충들은 늦봄과 초여름에 그린색의 어린 가지에, 종종은 꽃과 새순 바로 아래에서 하얗게 이는 거품 덩어리('cuckoo spit'으로 알려진)를 만들어 냅니다. 그 잎은 스트레스로 시들 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보통은 손상보다는 오히려 보기 흉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방제) 보통은 세기가 강한 물분사기를 사용해서 거품벌레와 거품을 제거하거나 손으로 훑어서 제거하십시오.

6. 잎을 잘라 먹는 벌류(가위 벌)

잎을 잘라 먹는 벌은 잎의 가장자리 주변으로 둥글고 규칙적인 모양의 구멍을 만들지만 해가 없는 부지러한 곤충입니다. 잎의 주맥만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잎새를 제거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런 벌들을 벽돌사이 공간에서, 창문 선반 아래 틈에서 또는 화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방제) 방제가 필요 없습니다. 장미에서 곧 새잎이 돌아 날 것입니다

7. 잎을 말아 버리는 벌류(잎 벌)

이 해충의 장미 공격은 특별합니다. 만약 장미의 어린잎이 타이트하게 말려서 아래로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안쪽에서 자라면서 장미 잎을 말고 있는 연한 그린색을 가진, 잎벌의 유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잎은 쪼그라 들어서 완전히 말라 버립니다

(방제) 감염된 잎을 잘라 내어 제거하거나 말린 잎을 손가락으로 꼭 짜서 유충을 으깨어 버리십시오. 겨울에는, 식물 아래 토양에 있는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겨우내 월동하는 그 유충이 포식자에게 노출되도록 해주십시오.

출처 : Alan Titchmarsh "How to garden"
번역 ; 황보순 로자리안

정원 여행에서 만난 장미 2

장미화단과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장미 연출

얼마 전 조수미의 인터뷰를 보던 중 영감을 얻으며 노래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정원사로서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 나는 어디서 영감을 얻고 있는지 궁금해 졌다. 물론 책이나, 영화 또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리고 때로는 정원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얻고 있었다.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과 방법으로 영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조수미의 인터뷰는 잠시 잠자고 있던 나의 영감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장미정원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영감을 깨우며 정원을 구상하는 시간은 더 즐거운 시간이 된다. 그래서 공간을 앞에 두고 상상하는 방법 중 즐겨 하는 것이 정원여행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는 시간으로 시작하곤 한다. 그 사진 속에는 당시 햇볕과 바람의 느낌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정원여행은 큰 자산이 된다.

조화로운 장미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아직까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장미화단을 잘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조성 전 고려사항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품종 별 특징과 키 그리고 특징을 고려하고, 향과 색 그리고 아름다운 화형을 가진 장미를 적절히 선택한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적응력과 반복적으로 개화하는 특징이 고려해야 할 항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화단의 공기순환과 전체 햇빛에 대한 요구도는 건강한 장미를 가꾸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하라고 말하고 있다. 아직까지 배울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 항목이라 생각한다.



Rose Planting & Landscape



수공간을 중심으로 장미화단 연출



곡선 조적 화단을 이용한 화단



수공간을 중심으로 장미화단 연출



원통형의 철재 구조물과 장미

일반적인 정원 디자인을 중심으로 장미화단도 생각해 보면서 공통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장미화단은 대칭적인 디자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분수 또는 조각물을 이용한 중심 요소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화단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화단 사이로 좁은 동선을 만들어 장미원을 거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양한 장미원을 감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넓은 장미원에 지난 호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둥이나 아치를 이용한 구조물을 배치하면 더 특별한 경관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품종을 선택해야 할까? 우선은 평소 관심을 가졌던 품종을 나열해 보자. 장미여행은 이러한 다양한 품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울로즈클럽에서 2017년도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장미의 색상과 화형 그리고 꽃의 크기를 분류해 놓고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수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미가 성숙했을 때 키를 고려하는 것은 화단 장미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품종이 결정되면 전체 평면도에서 영역별로 장미의 색상을 구분해 가며 면적을 정리하면 편리하다. 여러 색상의 장미를 같은 수량으로 식재하기 보다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품종 별 수량을 재미있게 정리해 보면 자기만의 장미원을 계획하게 된다.

이때 경험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관리 동선이다. 적절한 간격으로 장미를 배치해야 건강한 생육환경이 가능해 장미가 건강하고, 관리자도 쉽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장미 화단 디자인에 대해 준비해 보겠다.

이제 정원여행에서 만난 장미정원을 함께 보며 이야기 해 보겠다.

장미와 함께 혼합식재(Mixed Planting)한 사례다. 이 정원을 보고 나와 함께 정원을 만들고 있는 정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감동을 느낀다”

꽃 중의 꽃이 장미라는 말이 바로 이런 정원을 보고 말하는 것 같다. 장미만을 전시하듯이 펼쳐놓은 장미정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함께 피는 장미원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다르게 때문에 꼭 이런 장미정원만이 최고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 장미만을 가지고도 멋진 풍경을 만들어 놓은 사례를 보자. 한 가지 색상 또는 여러 가지 색상을 함께해도 훌륭하다. 풍성한 색 잔치에 들어간 느낌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런 색 잔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미에 빠지는 것 같다. 화단 장미원은 색만이 아니라 향기와 함께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사방을 장미꽃으로 덮고 있는 썬큰 가든(Sunken Garden)을 상상해 보자. 아래로 움푹 들어간 공간으로 주변에서 내려 온 장미향이 썬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기샤워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벽면을 이용한 장미 연출이다. 벽면을 이용한 장미 연출은 가장 큰 특징이 한 그루의 장미를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넓은 면적의 벽돌집이 있다. 여기에 한 그루의 장미가 전체를 덮든지 아니면 한쪽에 붙게 피어 있든지 저마다의 느낌이 있다. 사진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촬영한 월 가든(wall garden)은 소재가 붉은색 벽돌로 대부분 되어 있다



장미 가득한 화단



한 그루의 장미로도 건축물은 화려한 옷을 입는다

Rose Planting & Landscape



심플한 철재 구조물과 장미

우연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렇까? 자연 소재와 잘 어울리는 장미라는 생각이 든다. 너싱홈 그린힐의 월 가든에서는 주차장 콘크리트 옹벽을 장미로 덮고, 양쪽으로 벽돌을 노출해 장미와 함께 연출을 의도했다. 역시 월 가든에서 벽돌 소재는 좋은 소재라 본다. 월 가든에 좋은 소재로는 대나무 또는 원목벽, 돌담 등 건축물의 벽면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느 곳이든 비좁은 공간만 있어도 장미는 식재가 가능하고 좋은 경관을 만들어 준다. 우리는 라파엘 크리닉에서 장미정원을 만들다가 옆집 칼국수 집 앞에 심겨진 몇 그루의 장미를 재미나게 가꾸고 있는 남성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기억도 있다. 그때 그 남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도 감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성장애”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좌측의 사진은 화단에서 장미 유인이 가능한 형태의 월(wall)을 만들어 경관을 만들고 있다. 꼭 벽면이 아니라도 동선을 통과하는 곳에 이런 연출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화단 장미원을 더 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앞으로도 장미 연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해 보아야 하겠다. 한 송이 장미가 의도자의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노력은 더 중요하다 본다. 이번 우루과이 장미여행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낀 여행이 되기도 했다.

장미정원은 색과 향 그리고 혼합 식재를 이용한 공간 디자인이다. 이런 공간 디자인을 통해 감동을 만들 수 있는 기쁨을 서울로즈클럽에서 함께 경험 할 수 있어 기쁘다.

글, 사진; 이성현 로자리안

장미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장미 책 소개 : 장미를 예쁘게 피울 수 있는 재배 테크닉
스즈키 미쯔오 著

장미의 계절이 되면, 지나가는 길에 훌륭한 장미를 보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꽃인 데도 특히 손질을 보지 않은 줄기도 있습니다.

그런 줄기나 가지를 보고,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는 열심히 손보고 있는데도 내 집의 장미는 어쩔지 빠진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손질을 하고, 역으로 장미를 나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비료나 물을 빠지지 않고 주고, 확실히 병이나 해충의 방제를 하고 있는 데도, 웬지 생기가 없는 줄기, 그것은 즉 과보호입니다. 어느새 장미가 싫어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미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의 준비로, 어깨의 힘을 빼고, 가볍게 장미와 사귀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드디어 장미는 당신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지금 물이 필요해], [여기를 잘라줬으면 해], [싫어하는 곤충이 왔어], 등등...
그런 장미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장미를 예쁘게 피울 수 있는 재배 테크닉

그 소리를 따라서 손질을 보면, 매년 훌륭한 꽃이 되어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미조성의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저자 소개〉

鈴木満男(스즈키 미쯔오)

1950년생으로 이와테현 태생, 30년간 장미종묘회사에서 생산농가에 기술지도나 장미원의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정기적인 장미재배강습회도 담당. 「특정의 장미를 가리켜 보잘 것 없는 장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매력이 없는 장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장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의 사람이 그 장미의 매력을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장미를 키우면, 어떤 장미도 특별한 장미가 됩니다. 보잘 것 없는 장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장미를 능숙하게 피울 수 없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저서(공저) 「별책 NHK 취미의 원예 장미대백과 선택, 키우기, 피우기」(NHK 출판)

이 책의 사용법

장미의 재배는 처음인 사람은 당연히, 오랜 기간 장미를 재배해온 베테랑 여러분에도 좀더 좋은 가치를 키우고 좀더 예쁜 꽃을 즐기기 위해서 재배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것만은 생각해주었으면 하는]것이라는 장미를 조성하는 기본의 지식과 테크닉을 해설한 부분에는 장미마크를 붙였습니다. 초심자는 재배 전에 반드시 이 책을 통독하고 장미조성의 정곡을 찾으세요.

각 장의 최후에는 이런 저런 장의 내용에 관련이 있는 질문에 답하는 [이것이 알고 싶다 Q&A]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저자의 이런저런 다수의 질문으로부터 특히 많은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관목성의 장미를 키우기

덩굴성이 되지 않는 관목성의 장미(하이브리드티, 플로리번다, 잉글리쉬장미의 일부)의 재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미와 재료, 장미 성질 등의 기초지식으로부터 묘의 선택방법과 심기방법, 생육중의 관리방법, 가을 꽃을 위한 전정, 봄의 꽃을 위한 전정 등을 프로세스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미조성의 포인트에서도 있는 병과 해충의 방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넝쿨장미를 키우기

넝쿨 장미의 매력은 처음, 아치나 펜스, 벽면 등에서의 조성하는 방법과 함께 이런저런 적합한 품종을 취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심기방법으로부터 생육중의 관리, 전정과 유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트가 나오기 어려운 성질의 장미와 뿌리 부로 부터 성하는 슈트를 나오는 장미의 유인과 전정의 차이를 실제의 장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분에 키우는 즐거움

베란다나 현관 앞, 테라스 등에 화분의 장미를 장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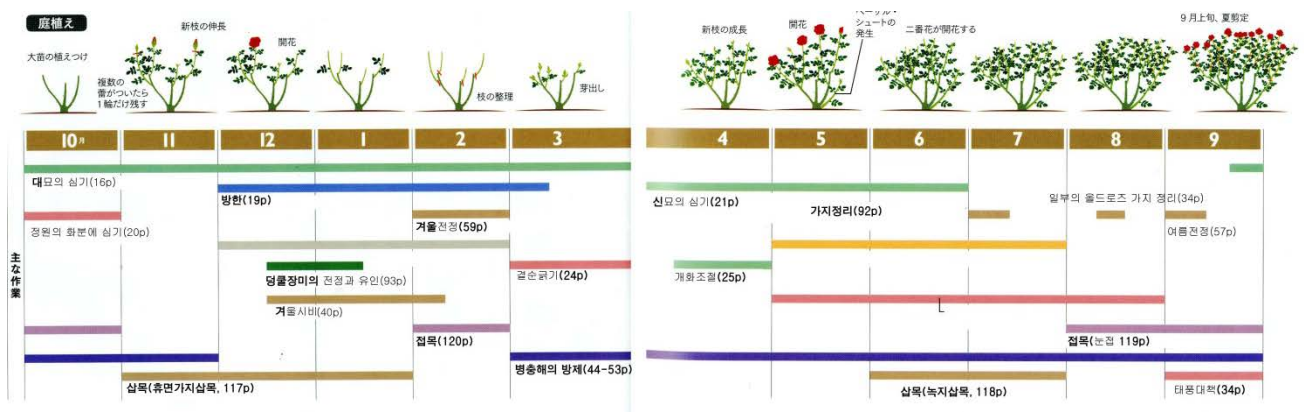
그래서 화분에 장미를 잘 키우는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흙과 화분, 키우기, 생육중의 손질로부터 전정까지, 풍부한 사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장미개체 수 늘리는 방법도 소개

장미의 삽목과 접목을 프로세스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1년과 관리, 작업 달력(일본관동이서지방기준)



글 : 유병국 로자리안



제 4호 | 2016. 12. 31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